



태국 나레수안대학 동계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성명		프로그램 시작일	2025/08/04
해외 파견대학	태국 / 나레수안대학교	프로그램 종료일	2025/08/15
파견기간	2025/08/03 ~ 2025/08/16 (14일)		
출국일	2025/08/02	귀국일	2025/08/17
1. 활동 (선택: ☒ 으로 표시)			
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	☒	
	문화프로그램	☒	
	기타		
만족도 (선택: ☒ 으로 표시)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사유(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인 경우):		
2. 출국 및 귀국 준비			
준비 과정	비행기표, 보험 등을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담당자님께 메일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과는 도착 전까지 따로 연락은 못했습니다.		
준비 물품	드라이기, 수건, 여벌의 옷, 세안도구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챙겨가셔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우니 양산, 휴대용 선풍기, 모기 퇴치제 등도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또 편의점은 네이버페이 QR로 결제 가능했고, 학교에 ATM기가 있지만 수수료를 고려해서 환전은 넉넉히 해가시면 좋습니다. 이심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기타참고사항	학교에서 부족한 건 해결가능하고, 세탁기 및 건조기도 이용가능합니다. 태국 측 학교 관계자 분들과 버디들이 정말 잘 챙겨주어서 편하게 생활했습니다.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학교가 정말 커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버디들의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숙소는 기숙사고, 3인 1실입니다. 주변에 나가실 때도 버디들과 함께 이용했고, 거의 학교 주변에서 움직였습니다.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날씨는 우기지만 비가 하루 종일 내리진 않고 오락가락 했습니다. 많이 덥고 습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숙소는 기숙사이고, 피사놀록 공항에서 내리면 학교측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도착시간은 미리 전북대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의료,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의료시설은 따로 이용해보지 않았고, 약은 지사제, 모기약 챙겨갔습니다. 타이레놀은 저렴하게 많은 곳에서 팝니다. 이심은 미리 준비해갔습니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사전 준비는 위에서 언급한 정도로 했고, 부족한 것은 현지에서 구매 가능했습니다. 현지 생활과 크게 다른 점은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 그랩도 이용했습니다.
소감	학교에서 혼자서 출발하고, 준비과정에서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어서 걱정을 많이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서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학교 측과 버디들이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해주시고, 불편함이 없는지 계속 물어봐주시고 챙겨주셔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한중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도 많이 교류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준비해주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경험하고 시간이 빠르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태국이란 나라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참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학교 사진(시설, 행사, 참가프로그램 등)

